

# 담화표상이론에서의 조건적 믿음

정소우\*†  
성신여자대학교

**So-Woo Chung. 2002. Conditional Beliefs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Language and Information 6.1*, 21-40. This paper explores 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s which can successfully describe the mental representations that discourse participants form when they hear so-called double access sentences. Th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double access sentences are discussed. The analysis proposed in this paper, employ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conditional beliefs' of Chung(1997), successfully explains the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present or future tense in double access sentences as well as when and why the speaker should take or can be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for using present or future tense in double access sentenc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Key words:** 시제 일치, 이중 접근 문장, 화자의 조건적 믿음, 담화 표상 구조

## 1. 머리말

아래 (1)의 예문을 전해들은 영어 모국어자들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간접 화법으로 전달할 때 (2)에서와 같이 주절이 과거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에 현재시제나 미래시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1) 가. Bush will visit Korea soon.  
나. Mary is pregnant.  
다. The Earth is round.
  
- (2) 가. They announced that Bush will visit Korea soon.  
나. John said that Mary is pregnant.  
다. Mark claimed that the Earth is round.

위의 예문은 영어 문법 규칙 중 소위 시제 일치 (Sequence of Tense)란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시제 일치란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의 영향을 받는 현상을 일컫는다. 예를 든다면, (1나)와 같이 John이 어느 과거 시점에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전달한 내용을 들은 Bill이 이 내용을 간접화법을 사용하여 Mary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John이 사용한 현재시제를 John의 발화시점에 맞추어 과거시제

\*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swchung@cc.sungshin.ac.kr

† 이 논문은 1999년도 재단법인 윤정재단 해외파견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도움말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께 감사드립니다.

로 변환하는 현상을 시제 일치라 한다. 시제 일치 규칙을 따른다면 위 (1)의 예문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야 옳다.

- (3) 가. They announced that Bush would visit Korea soon.  
 나. John said that Mary was pregnant.  
 다. Mark claimed that the Earth was round.

하지만 (2)과 같은 예문은 일상 대화에서는 물론 (4)와 같이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 (4) 가.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said last week that the U.S. will see where it stands when Ramadan begins. (Time 2001, 11, 5, p.38)  
 나. White House officials said Muslim women will be asked to play a prominent role. (Washingtonpost 2001, 11, 3)  
 다. Jones said that she is happy and hopes it will help her case. (CNN.com 1998, 6, 26)

또한 정소우(1999)에서 밝혔듯이 (2)와 같은 예문이 시제 일치 규칙을 따른 (3)과 같은 예문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 가령 예로써 (2가)는 그들이 발표하는 시점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부시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정보만을 주는 (3가)에 비해 현재까지 부시의 한국 방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추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2나) 역시 John의 발화 시점에 Mary가 임신 상태였다는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는 (3나)에 비하여 Mary가 현재까지 임신 상태에 있다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가 반드시 옳은 정보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부시가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화자가 모르고 위의 (2가)를 발화하였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2)의 예문들을 위한 담화표상구조를 논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가 이루어진 (3)의 문장은 종속절의 내용이 주절에 명시된 과거 시점만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반면, (2)의 종속절 내용은 주절에 명시된 과거 시점뿐만 아니라 주절이 발화된 현 시점도 그 평가 기준 시점이 된다. 이와 같이 그 평가 기준 시점이 둘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2)의 예문은 이중접근문장(double access sentences)이라 불린다.

이중접근문장은 보고문(reported sentences)에 많이 나타나는데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항상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 (5) 가. !John said that Mary will leave on Sunday. But, she already did.  
 나. John said that Mary would leave on Sunday. But, she already did.

이중접근문장의 사용되는 조건에 대하여 Smith(1978), Comrie(1985), Abusch(1991, 1997) 그리고 Ogihara(1995, 1999) 등 여러 언어학자들과 Sinclair et. al.(1992), Quirk et. al.(1985), Swan(1980) 등 영문법학자들의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Abusch(1991, 1997)와 Ogihara(1995, 1999)를 제외한 대개의 문헌들은 상세한 논의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Sinclair et. al.(1992)나 Quirk et. al.(1985)는 이중접근문장은 종속절에 명시된 상황이 발화 시점에 여전히 유효할 때 사용된다는 다소 화자와는 무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Smith(1978)는 이중접근문

장은 종속절 사건이 주절 동사의 시점과 발화시점 모두에 존재할 때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Comrie(1985)는 이중접근문장은 종속절 사건이 실제의 사건이던 가상의 사건이던 화자가 그 사건이 발화시점에도 유효하다고 믿을 때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Declerck(1991)와 Swan(1980) 등 여러 학자들은 이중 접근 문장의 현재 시제는 화자의 판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Declerck은 (3나)는 John의 말을 화자가 중립적인 자세로 전달하고 있는 반면, (2나)는 화자가 John의 말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sup>1</sup> Swan 역시 화자가 사실을 전달한다고 느끼면 (2나)처럼 종속절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나,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3나)처럼 종속절에 과거 시제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Abusch(1991), Ogihara(1995) 이중 접근 문장의 현재 시제는 화자가 주절의 주어의 말을 믿는다고 보다는 단지 종속절의 상황이 발화시점에도 유효하거나 그 유사한 상황이 발화시점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중접근문장의 현재시제와 미래시제의 의미론적 특성과 화용론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접근문장의 현재시제나 미래시제는 화자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며, 그 견해는 조건적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이중접근문장을 접한 청자가 그 속에 담긴 화자의 조건적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Kamp & Reyle(1993)의 담화표상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이중접근문장에 담긴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담화표상이론을 채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담화표상구조는 언어표현의 의미론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화용론적 특성까지도 표현할 수 있으며, 그 표현을 접한 청자의 인지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 역점을 둔 기제이기 때문에, 담화의 주요 목적이 정보전달이란 면에서 이중접근문장을 접한 청자가 그리는 담화표상구조를 관찰함으로써, 이중접근문장이 전달하는 정보를 보다 올바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적은 기존의 담화표상이론 문헌이 다루지 않은 언어현상을 다룸으로써 담화표상이론의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 2. 복합문의 담화표상구조

Kamp & Reyle (1993)의 담화표상이론은 통사적 단계, 담화표상구조단계, 그리고 해석단계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담화표상구조단계는 담화 참여자들이 언어표현을 듣고 머리 속에 그리는 마음의 표상 (mental representation)을 나타내는 곳으로, 담화지시자와 담화조건으로 이루어진 담화표상들로 구성된다. 담화표상간의 구조적 관계는 명사간의 조응관계, 함의관계, 영역관계 등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이 구조적 관계는 주어진 문장이 갖는 중의성에 따라 두 가지 이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청자와 화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의해 쉽게 검증되는 것이다. 가령, 화자가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한 문장을 사용하였을 때, 청자는 화자가 뜻한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를 머리에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한 문장에 대한 담화표상구

1. 이는 김종도(1996)에서 인용한 것임.

조를 구현할 때 두 가지 이상으로 구현하는 측은 청자이지 화자는 아닌 것이다.<sup>2</sup> 그래서 본고는 화자보다는 청자의 입장에서 문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Kamp & Reyle(1993)는 아래 (6)의 문장을 들은 청자의 인지 상태는 (7)과 같다고 제시한다.

(6) Mary wrote the letter.

(7) 

n, e, x, y, t
$e \subseteq t$
$t < n$
Mary(x)
the letter(y)
e: x write y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t는 시간을, e는 사건자를, n은 발화시점인 현재를 나타낸다.  $\subseteq$ 는 내포관계를 나타내는데  $e \subseteq t$ 는 사건이 평가시점에 내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 는 두 시간간의 순서를 의미하는데  $t < n$ 은 평가시점인 t가 발화시점인 현재보다 앞선 시간, 즉 과거의 한 시점임을 의미한다. 위의 담화표상구조를 Davidson의 술어논리 체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8)  $(\exists e)(\exists x)(\exists y)(\exists t)[t < \text{now} \ \& \ \text{Mary}(x) \ \& \ \text{the letter}(y) \ \& \ \text{Write}(e,x,y) \ \& \ \text{Time}(e,t)]$

즉, (7)의 담화표상구조는 'Mary wrote the letter'를 들은 청자의 뇌 속에 이 세상에 Mary라는 한 개체가 청자와 화자의 담화 대상이 되고 있는 the letter를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썼다는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래 (9)와 같이 종속절을 내포한 복합문은 어떠한 담화표상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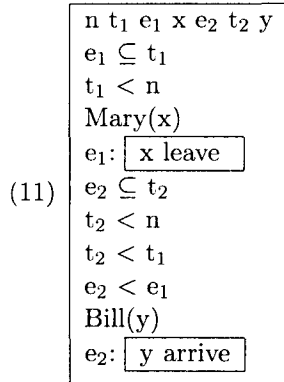
(9) Kevin said that Sam was in New York.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흥미롭게도 Kamp & Reyle(1993)은 'until', 'when'과 같이 종속절이 부사절인 복합문과 관계절이 내포된 복합문의 담화표상구조는 제시하고 있지만, (9)와 같이 종속절이 동사의 논항이 되는 복합문의 담화표상구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Kamp & Reyle이 제시한 시간 부사절이 내포된 복합문의 담화표상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9)와 같은 복합문도 같은 구조의 담화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록 한다.

Kamp & Reyle은 (10)의 예문을 접한 청자의 심상을 (11)의 담화표상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2. 물론 화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익을 위하여 일하는 외교관들간의 협상이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회사 대표들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10) Mary left after Bill arrived.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주절의 사건 ‘Mary leave’와 종속절의 사건 ‘Bill arrive’는 각각 그 평가시점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인 물체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듯이 모든 사건들은 시간적인 공간을 차지한다는 인간의 지식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주절의 사건과 종속절의 사건 모두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단순히 발화 시점인 현재보다 앞선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두 시점간에는  $t_2$ 가  $t_1$ 보다 앞선다는 선행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속절 사건이 주절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또한 종속절 사건이 주절 사건의 시간 기준점 역할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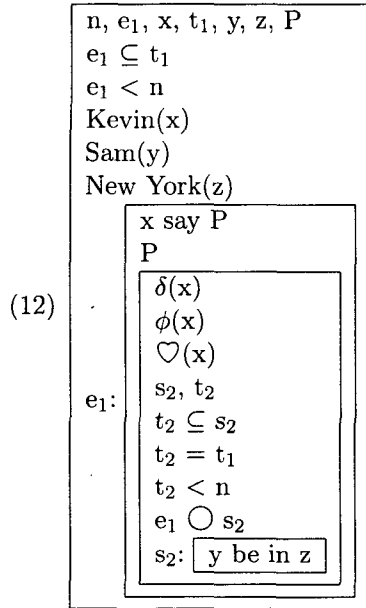
그렇다면 예문 (9)를 접한 청자가 뇌 속에 그리는 담화표상은 어떠한 구조를 이루게 되는가? 그 구조가 (11)의 담화표상구조와 유사한가? 이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답을 한다면 그 답은 ‘아니다’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10)과는 달리 (9)와 같이 ‘say’가 사용된 복합문은 종속절 사건이 실제 담화세계에 존재하지 않아도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9)는 (10)과는 달리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이 지시하는 내용의 속성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9)의 의미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Sells(1987)과 Chung(1989)에 제안되었듯이 (9)는 아래와 같은 담화표상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sup>

3. Ogihara(1995)는 (9)와는 달리 아래 (i)처럼 주절의 동사가 사실성 동사인 복합문은 (ii)와 같은 사역적 부사절 (causative adverbial clauses)처럼 종속절 사건이 실제 담화세계에 존재하여야 참이므로, 사실성 복합문과 사역적 부사절이 사용된 복합문은 진리조건적인 면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 (i) John found out that Mary was pregnant.
- (ii) I went out in my winter coat because it was cold.

그는 더 나아가 아래 (iii)과 (iv)의 사실성 이중접근문장과 사역적 이중접근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구문 모두 종속절의 사건이 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v)와 같은 비사실성 이중접근문장이 종속절 사건이 참이 아니어도 문장 전체가 참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 (iii) John found out that Mary is pregnant.
- (iv) I went out in my winter coat because it is very cold today.
- (v) John said that Mary is pregnant.



‘P’, δ(x), φ(x)와 ♥(x)는 Sells(1987)이 ‘say’와 같은 명제태도동사(propositional attitude verbs)의 의미적 특성을 담화표상구조로 나타내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p’는 명제(proposition)을, δ(x)는 그 명제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φ(x)는 그 명제가 누구의 심적상태 (mental state or attitude)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그리고 ♥(x)는 그 명제의 내용이 누구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에서 평가가 되는 것인지를 나타낸다.<sup>4</sup>

위의 담화표상구조 (12)에서 Sam이 뉴욕에 있었던 사건의 담화 지시자 s<sub>2</sub>는

Ogihara는 (iii)과 (iv)와 같이 전체 문장이 참이되기 위해서 종속절 사건이 참이어야 하는 이중접근문장을 '진리를 요하는 이중접근문장 (CRT double-access sentences)라 부른다. (CRT는 Clauses that are Required to be True를 약어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성 이중접근문장과 비사실성 이중접근문장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Ogihara는 (iii)과 (v)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단지 동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제안한다.

(vi) ∃s[exist'(s\*,s) & ∃e[e<s\* & find-out'(e,j,s, ^λt.λs<sub>2</sub>[be-pregnant'(s<sub>2</sub>,m))]]]

(vii) ∃s[exist'(s\*,s) & ∃e[e<s\* & say'(e,j,s, ^λt.λs<sub>2</sub>[be-pregnant'(s<sub>2</sub>,m))]]]  
 ('s\*'는 발화 시점을 나타낸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i)의 사실성 복합문의 담화표상구조는 본문에 제시된 (9)의 비사실성 복합문의 담화표상구조인 (12)와 동일한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ii)과 같은 사실성 이중접근문장의 담화표상구조 역시 본 논문 3절에 제시되는 비사실성 이중접근문장의 그것과 동일한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비사실성 이중접근문장만을 다루도록 한다.

4. δ(x), φ(x)와 ♥(x)의 의미적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ells(1987)를 참조할 수 있다. 위의 담화표상구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say 동사의 명제태도 특성이 그 동사의 고유한 의미적 특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위 담화표상구조에 반드시 δ(x), φ(x)와 ♥(x) 같은 기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담화표상이론에서 담화표상구조단계는 해석단계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위의 담화표상구조가 δ(x), φ(x), ♥(x) 없이 해석단계에 입력되더라도 say의 명제태도 특성이 명시된 해석이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명료성을 위하여 Sells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한다.

주 상자가 아닌 하위 상자에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Sam이 뉴욕에 있었던 사건이 실제 세계에서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세계에서 Sam이 뉴욕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전체 문장 (9)는 참일 수 있다. 즉, 종속절의 진위 여부가 문장 전체의 진리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이중접근문장의 담화표상구조

머리말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이중접근문장은 종속절의 내용이 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다른 복합문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1)과 같은 이중접근문장을 접한 청자가 그리는 담화표상구조는 전항에서 논의한 단순 복합문과는 달라야 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그 차이점이 어떠한 것이며, 이중접근문장의 담화표상구조는 어떠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 3.1 이중접근문장의 형태적 특성

먼저 종속절이 두 개 이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이중접근 문장의 형태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자.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3) 가. John said that Bill is sick.  
 나. John said that Bill will visit you soon.  
 다. John thinks that Bill was sick.  
 라. John will think that Bill was sick.  
 마. John thought that Bill was sick.  
 바. John thinks that Bill is sick.

위의 예문들 중 (13가)와 (13나)만이 이중접근문장으로 분류된다. 이중접근문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주절의 시제는 과거이며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 또는 미래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13가)와 (13나)의 종속절 사건은 주절의 과거 시제에 의해 지시되는 과거 시점과 현재시제와 미래시제에 의해 지시되는 발화 시점이나 발화시점 이후의 미래 시점의 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반면, (13다)와 (13라)에서와 같이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거나 미래인 경우의 종속절 사건은 주절의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에 의해 지시되는 현재 즉 발화 시점이나 미래의 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13마)와 같이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모두 과거인 경우도 종속절 사건은 주절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위에 소개된 이중접근 문장은 모두 종속절이 주절 동사의 보어이다. 이와는 달리 아래와 같이 종속절이 관계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14) Bill hired a woman who knows statistics.

(13)의 예문과는 달리 (14)의 예문의 경우 이중접근 해석은 의무적이 아니라 선택적이다. 가령, (14)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Bill이 고용한 여성이 현재 통계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고용 당시에 통계 지식을 갖추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Bill이 고용한 여성이 현재 통계 지식을 갖추었음은 물론 고용될 당시에도 이미 통계 지식을 갖춘 경우로 이 해석이 이중접근해석이

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4)의 이중접근 해석은 (13)의 예문과는 달리 반드시 주어지는 해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sup>5</sup>

또 다른 이중접근 문장의 형태적 특성은 Hornstein(1990)의 locality condition과 관련이 있다. Locality condition이란 시제 일치 규칙 적용시 한 내포절의 시제는 그 내포절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바로 위의 상위절 시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Hornstein은 이 locality condition으로 인해 내포절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한 내포절에 이중접근 문장 해석을 유발하는 통사적 특성이 나타나면 그 내포절에 내포된 모든 하부절에도 같은 통사적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써, John의 발화 (15)를 전달할 때, Tom은 (16가) - (16다)의 이중접근문장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16라)와 같은 부분적 이중접근문장은 사용할 수 없다.

(15) Mary believes Susan will come.

(16) 가. John said that Mary believed Susan would come.

나. John said that Mary believed Susan will come.

다. John said that Mary believes Susan will come.

라. \*John said that Mary believes Susan would come.<sup>6</sup>

(16라)가 이상한 이유는 중간 내포절에 이중접근 문장 해석을 유발하는 형태적 특성이 나타났으나, 그 하부절은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중접근 문장의 또 다른 특성은 종속절의 동사와 관련이 있다. Chung(1989)에서 언급하였듯이, (2가)와 같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고 종속절의 시제가 단순 현재인 이중접근문장의 종속절 동사가 동작 동사나, 완수 동사 혹은 성취 동사인 경우 종속절 사건은 특정한 사건을 가리킬 수 없으며 종속절 주어의 일반적 속성을 가리키게 된다.

(17) 가. John said that Bill is sick.

나. John said that Bill sings at a restaurant.

다. John said that Bill builds houses.

라. \*John said that Bill builds the houses.

5. 이러한 이유로 Enç(1987)은 (14)와 같은 문장들은 이중접근문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6. (16라)는 John의 발화가 'Mary believes Susan will come'이 아닌 'Mary believes Susan would come'인 경우에는 적합한 전달문이 될 수 있다. 이때 (16라)의 would는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시제일치에 의한 것이기 보다 미래의 가능한 사건에 대한 양상조동사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두 예문을 통해서 이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i) Mary believes Susan broke the window.

(ii) John said that Mary believes Susan broke the window.

일건, (ii)는 Hornstein의 locality condition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ii)에서 제일 하위절의 과거시제는 (i)의 과거시제가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ii) 적합한 이중접근문장이 된다. 단지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broke의 시점은 제일 상위절의 동사 said의 시점보다 이전의 시점을 지시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예문은

Dowty(1973)이나 Ogihara(1995) 등과 같이 시제를 일종의 양화사적 표현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Partee(1973, 1984), Enç(1987)이나 Stowell(1996)과 같이 시제를 지시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절 동사의 상이 현재진행형인 경우 동작 동사, 성취동사, 완수 동사 모두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더라도 과거-현재 이중접근문장을 이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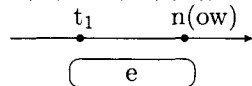
- (18) 가. John said that Mary is singing songs at the auditorium.
- 나. John said that Bill is building a house.
- 다. John said that Bill is reaching the top.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고 종속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 (편의상 이러한 구조의 이중접근문장을 과거-미래 이중접근문장이라 부른다), 종속절 사건은 상태사건, 동작사건, 완수사건, 성취사건 모두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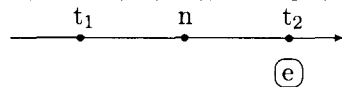
- (19) 가. John said that Bill will be 20 next month.
- 나. John said that Bill will come.
- 다. John said that Bill will make a cake for you.
- 라. John said that Bill will win the game.

(18)과 (19)의 예문에 나타나는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인 이중접근 문장과 종속절의 시제가 미래인 이중접근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 다른 이유는 두 종류의 이중접근 문장의 종속절 사건이 평가되는 기준 시점이 두 시점이라는 특성은 같으나 종속절 사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시점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종속절이 현재인 이중접근 문장의 경우 종속절 사건은 주절의 과거 시점과 현재인 발화시점의 두 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반면 종속절 시제가 미래인 이중접근 문장의 경우 종속절 사건은 주절의 과거 시점보다 후이면서, 종속절 현재 시점인 발화시점보다도 후인 미래의 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것이다.<sup>7</sup>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20) 가. 과거-현재 이중접근 문장의 종속절 사건



- 나. 과거-미래 이중접근 문장의 종속절 사건<sup>8</sup>



7. Enç(1987, 1996) 등의 여러 문헌은 영어에 미래시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Stowell(1995, 1996), Okamura(1996) 그리고 정소우(1999)의 설명을 따라 영어에 미래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8. (20나)에 제시된 시간과 사건간의 관계는 (19나)의 예문과 같이 will이 사용된 종속절 사건이 미래시간에 반드시 존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시점이 발화시점보다 후의 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절 사건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건의 시점은 가능세계와 연결시켜야 옳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20나)는 Comrie(1985)와 같은 여러 시제 관련 문헌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을 따른 것임을 밝힌다. 또한 will을 조동사로 간주하는 Enç(1997)의 주장대로 will이 may가 아닌 must의 성격을 띤다면, will이 사용된 (19나)의 종속절 사건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나)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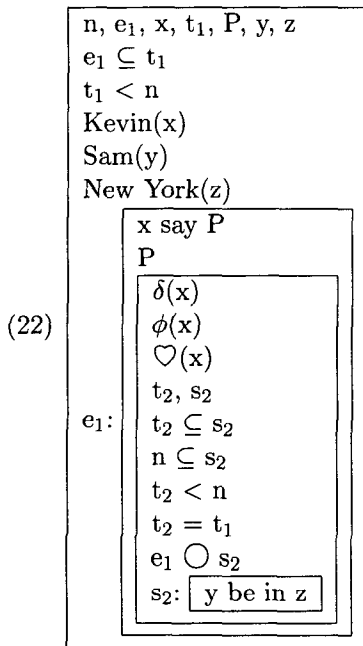
그러므로, 과거-현재 이중접근문장의 종속절 사건은 상태사건나 진행형 사건이 되어야 하는 반면 과거-미래 이중접근문장의 종속절 사건은 상태사건, 성취사건, 동작사건, 완수사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은 상태사건은 시간을 포함하고 동작사건, 완수사건, 성취사건 등은 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의미론 기본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3.2 이중접근문장에 나타나는 화자의 의도**

본 항에서는 이중접근문장의 담화표상구조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중접근문장에 나타나는 화자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중접근 문장도 전항에서 다룬 복합문과 같은 유형의 담화표상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때, 2절에서 설명되었듯이, 이중접근문장의 종속절 사건이 종속절 시제와 주절의 시제의 두 시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21)의 담화표상구조는 (22)와 같을 것이다.

(21) Kevin said that Sam is in New York.



위 (22)의 담화표상구조를 (12)의 담화표상구조와 비교하여 보면, (12)와는 달리 (22)에서 종속절 사건  $s_2$ 가 문장 발화 시점인  $n$ 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21)의 종속절의 현재 시제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22)의 담화표상구조는 우리의 직관과는 맞지 않는 해석을 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논의의 편의상 Kevin이 Sam이 뉴욕에 있다고 말한 것은 어제였다고 하자. 이때, (22)의 담화표상구조가 뜻하는 바는 어제 Sam이 뉴욕에 있었다고 Kevin이 어제 말했으며, 또한 Sam이 오늘도 뉴욕에 있다고 Kevin이 어제 말했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Sam이 오늘 뉴욕에 있다는 사실을 Kevin이 어제 말했다는 것은 직관상 맞지 않는 것이다. 물

론, 어제 Kevin이 Sam이 뉴욕에 있고, Sam 오늘도 뉴욕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22)의 담화표상구조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해석은 (21)의 문장이 보장하는 해석은 아닌 것이다. (21)의 문장에서 Kevin에 대하여 보장되는 것은 Kevin이 Sam이 어제 뉴욕에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Sam이 어제 뉴욕에 있었다면, 실령 Sam이 오늘 뉴욕에 없다 할지라도 Kevin의 말은 옳은 것이다. Sam이 어제 밤 워싱턴으로 떠나 오늘은 뉴욕에 없다고 해서 Kevin에게 잘못 안 것이라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Kevin은 이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는 옳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그 문제는 (21)의 예문의 종속절에 나타난 현재 시제를 담화표상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위에 논의된 Sam이 뉴욕에 있다가 밤에 워싱턴으로 떠난 경우에 Sam이 뉴욕에 있었다는 사건은 문장 발화 시점인 오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종속절의 현재 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Kevin이 아닌 화자의 잘못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즉, 화자가 Kevin이 Sam이 뉴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아직도 Sam이 뉴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종속절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담화 세계에 부합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책임은 화자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책임은 (22)의 담화표상구조에 Sam이 발화 시점에 뉴욕에 있다는 화자의 믿음을 위한 담화표상을 첨가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은 과거-현재 이중접근 문장의 종속절에 사용된 현재 시제를 화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23) 가. John said that the earth is round.

나. John said that God exists.

위의 예문들의 종속절은 소위 불변의 진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종속절의 현재 시제가 화자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나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시간적으로 무한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믿음이 짧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견해를 전달하는 화자 역시 이를 고려하여 이중 접근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3나)와 같은 예문에서 화자가 시제일치 규칙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말한다면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청자는 오히려 어색하게 느끼거나 혼동할 수도 있다.

(24) John said that God existed.

가령, Bill이 Mary에게 ‘God exists’란 John의 말을 (23나)가 아닌 (24)로 전달했다면 Mary는 신의 존재를 믿고 있던 John이 어찌면 지금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모국어자들이 (24)보다는 (23나)를 선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중접근문장의 종속절에 사용된 현재 시제를 일괄적으로 이중접근문장의 주절 주어의 견해로만 보는 것이나 전체 문장의 화자의 견해로만 보는 것 모두 만족스럽지 못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중접근문장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종속절의 현재시제나 미래시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Sinclair et. al.(1992)와 Quirk et. al.(1985) 등 일반

영문법 문헌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더라도 종속절이 내용이 현재에도 성립되는 경우에 종속절에 현재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Comrie(1985) 등은 화자가 종속절 내용이 (가상이던, 실재이던) 발화시점에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에서 다룬 예문에서도 보았듯이 화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여 종속절 내용이 발화시점에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busch(1991, 1997)와 Ogihara(1995)는 종속절이 지시하는 상황이 발화시점 당시에 담화세계에서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De Re 분석을 제시한다. 예로써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25) John said (last month) that Mary is pregnant but actually she has just been overeating for the last three months. (Abusch 1991:2)

위 예문을 지난 세 달간 과식을 하여 배가 나온 Mary를 보고 John이 Mary가 임신을 하였다고 잘못 생각하고 전한 말을 들은 Tom이 한 말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Tom은 Mary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 자신의 발화시점에 Mary의 임신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였다. Abusch와 Ogihara는 위의 예문에서 이중접근문장이 가능한 것은 Mary의 임신 상황과 유사한 상황, 즉 Mary의 배가 볼록한 상황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Ogihara는 (25)의 앞부분의 해석은 (26)과 같으며, (26)은 다시 (27)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 (26)  $\exists s[\text{exist}'(s^*, s) \ \& \ \exists e[e < s^* \ \& \ \text{say}'(e, j, s, \hat{\lambda}t \lambda s_1[\text{be-pregnant}'(s_1, m)])]]$   
(Ogihara 1995:206)

- (27) There is a state  $s$  now and there is a suitable relation SR such that (i)  $s$  is the state to which John bears SR in  $w_0$  at  $t_0$ , and (ii) John talks in  $w_0$  at  $t_0$  as if for every doxastic alternative  $\langle w, t, x \rangle$  of John in  $w_0$  at  $t_0$ , the state to which  $x$  bears SR in  $w$  at  $t$  has in  $w$  at  $t$  the property of being a state of Mary's being pregnant.

위에서 ' $s^*$ '은 발화시점을 뜻한다. (26)은 담화세계에 상황  $s$ 가 존재하고 John이 그 상황  $s$ 가 Mary의 임신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해석을 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Mary의 임신이라는 상황이나 유사한 상황의 존재 여부가 문장 전체의 진리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exists s[\text{exist}'(s^*, s)]$ ' 부분이 거짓이란 진리치를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전체 문장이 거짓으로 평가되게 된다. 이는 이중접근문장은 종속절에 나타난 사건(Mary가 임신한 사건)이나 그 유사한 사건(Mary의 배가 부른 상황)이 발화시점에 존재하여야 된다는 조건을 내재적으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중접근문장의 사용된 현재시제나 미래시제에 대하여 책임이 화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Abusch와 Ogihara의 설명은 이중접근문장의 의미론적 측면만을 설명할 뿐 화용론적 측면을 다루는데는 불충분하다. 즉,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는 (그 사용이 옳건, 그르건) 화자의 심상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

된다. 왜냐하면, 화자는 종속절이 지시하는 상황이나 적합한 상황(위의 suitable relation)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서도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써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8) *Jack and Bill are in a classroom.*

a. Jack: Where is Donna?

b. Bill: John said that she is sick. So, I don't think she is coming today. *Right after class, Jack sees Donna playing tennis and think she was not sick.*

c. Jack: (A little bit angry.) Donna, what are you doing? I heard you are sick.

위의 대화에서 Jack은 수업시간에 Donna가 아프다는 것을 들었으나, 수업 후 테니스를 치고 있는 Donna를 보고는 그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업에 오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댄 Donna에 화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발화에서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중접근문장은 Jack이 Donna가 아픈 상황이나 원래 초점이 되었던 상황 즉 Donna가 아픈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화시점에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Jack이 'Bill의 말대로 Donna 네가 수업에 못 올 정도로 아팠다면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할텐데, 네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거짓말을 한 것이 틀림없구나'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수업에 빠진 Donna에게 자신의 노여움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사실 Jack은 이미 Donna가 아프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I heard you were sick'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28c)보다는 힐책의 효과가 적다. 이러한 다소 역설적이지만 더 효과적인 힐난은 지금 Donna가 테니스를 치고 있으므로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아는 Jack이 의도적으로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28c)가 주는 이러한 효과는 다음 절에 제시된 화자의 조건적 믿음에 기초한 Jack의 말 책략에서 나온다고 판단된다. (28c)에 담긴 Jack의 책략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음 절에서 다루는 이중접근문장 예문들에 나타나는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청자는 이중접근문장에 나타나는 화자의 조건적 믿음으로 이루어진 심상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화자의 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담화표상구조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3.3 조건적 믿음을 위한 담화표상구조

본 논문에서는 이중접근문장의 종속절에 사용된 현재시제나 미래시제에 담긴 화자의 심상을 올바르게 담화표상구조로 표현하기 위하여, 정소우(1997)에 제시된 '화자의 조건적 믿음'이란 개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정소우(1997)에 제시된 화자의 조건적 믿음이란 화자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신의 믿음이나 의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의 믿음을 뜻한다. 예로써, 아래의 이중접근문장에 나타난 화자의 조건적 믿음은 John이 말한 시점에 Mary가 임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의 발화 시점의 모든 상황이 John의 발화 시점의 상황과 동일하거나 또는 Mary의 임신 상태를 부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조건이라면 Mary가 현재 자신의

발화 시점에도 임신 중일 수도 있다는 믿음인 것이다. (29)는 정소우(1997)의 분석에 따라 (30)을 접한 청자가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해석으로 'C\*'는 Mary가 현재 임신중인 상황과 양립할 수 있는 조건들의 집합이다.

(29) John said that Mary is pregnant.

(30) John says at a time  $t_0$  in the past that a state  $s_1$  of Mary's being pregnant holds at  $t_0$  and the speaker S believes at the time of utterance  $t_s$  that it is the case that the state  $s_1$  still holds at  $t_s$  if state  $s_1$  holds at  $t_0$  and there is C\* at the interval I such that includes  $t_0$  and  $t_s$ .

(30)은 Abusch와 Ogihara의 de re 분석과 달리 발화시점에 중속절 사건이나 그 유사한 상황 또는 초점이 되었던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에 정소우(1997)의 화자의 조건적 믿음을 이용한 이중접근문장 분석은 화자가 이중접근문장에 필요한 조건적 믿음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잘못 파악하는데서 생긴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현상을 직관에 맞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가령, 지난 주 월요일 Bill이 Sue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다음날인 화요일에 John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자. 그리고, Sue가 지난 주 토요일 출산을 하였으며, John은 Sue의 출산 소식을 못 들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John과 Mary 사이에 있었던 아래의 대화를 살펴보자.

(31) John: Bill said that Sue is pregnant.

Mary: Yes, she was pregnant. But, not any more. She gave birth to a baby girl this Monday.

John: Oh, really. I didn't know that.

위의 대화에서 Mary는 Bill의 말처럼 Sue가 임신을 했었으나 이번 월요일에 출산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Mary는 Bill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과 John의 이중접근문장에 사용된 조건적 믿음의 조건이 사실과 맞지 않는 조건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John의 반응은 자신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John은 이중접근문장에 필요한 조건적 믿음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잘 못 파악하는데서 생긴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31)에 나타난 화자의 조건적 믿음이란 화자 자신이 아는 바로는 Bill의 발화시점과 자신의 발화시점 사이에 Mary의 임신상태를 부정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John이 말한 시점에 Mary가 임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Mary가 현재 자신의 발화 시점에도 임신 중일 것이라고 믿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30)은 아래 (32)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32) John says at a time  $t_0$  in the past that a state  $s_1$  of Mary's being pregnant holds at  $t_0$  and the speaker S believes at the time of utterance  $t_s$  that there is C\* at the interval I such that includes  $t_0$  and  $t_s$  and it is the case that the state  $s_1$  still holds at  $t_s$  if state  $s_1$  holds at  $t_0$ .

(32)에서는 (30)과 달리 조건 ‘there is C\* at the interval I such that includes  $t_0$  and  $t_s$ ’가 ‘if’절 밖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할 때 화자에게는 이중접근문장의 종속절 사건이 종식될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31)에서 John이 이중접근문장에 필요한 조건적 믿음을 구성하는 조건의 하나인 ‘Sue의 임신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사건이 없었다’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잘 못 알아서 생긴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는 과정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32)에 제시된 화자의 조건적 믿음은 전 절에서 논의된 (28c)의 힐책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여 줄 수 있다. 이미 논의되었듯이, (28c)의 화자인 Jack은 Donna가 아프지 않았으며 또한 수업할 시간에도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c)와 같이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한 것은 Donna에게 보다 많은 무안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28c)에 담긴 Jack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먼저 Jack은 Donna가 수업에 못 올 정도로 아팠다면 짧은 수업 시간 동안 격한 테니스를 칠 정도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Donna가 아픈 적도 없었으며, 단지 수업에 빠지기 위해서 Donna가 거짓말을 했구나하는 판단에 이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Jack이 짧은 수업 시간에 아픈 사람이 테니스를 칠 정도로 회복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Jack의 생각으로는 Donna가 지금 테니스를 치고 있으므로 조금 전 수업 시점에도 Donna가 아팠을리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28c)를 들은 Donna 역시 이러한 Jack의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더욱 무안감을 느낀다고 할 것이다.

(32)에 제시된 화자의 조건적 믿음을 기초로한 이중접근 문장 분석에 따르면, Jack의 입장에서 (28c)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이중접근문장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아픈 사람을 짧은 수업 시간 동안 테니스를 칠 정도로 회복시켜주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Jack으로서는 (32)의 ‘변화없었다’는 조건이 만족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그러므로 Donna가 수업 시간에 아팠던 것이 사실이라면 수업 직후인 지금도 아픈 상태일 것이라는 조건 역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물론 Donna가 수업 시점에 아팠고, 마치 기적과 같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테니스를 칠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다면, (28c)의 이중접근문장은 제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책임은 Jack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이 때, Jack의 책임은 화자의 조건적 믿음을 구성하는 일부인 ‘아무 변화가 없었다’란 조건을 잘 못 설정한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본 절에 제시된 조건적 믿음을 기초로 한 이중접근문장 분석은 화자가 자신의 믿음이나 지식과 상치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는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33) Tom said that God exists. But, I don't think so.

위의 예문에서 화자는 신이 존재한다는 Tom의 말을 믿지 않지만, 오히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Tom의 말을 전달하는데 이중접근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정보로는 Tom의 발화 시점 이후 지금까지 신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Tom의 말이 사실이라면, 즉 Tom이 말한 시점에 신이 존재하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이 존재할 것이라는 조건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한 것이다.

종속절의 내용이 신의 존재 여부와 같은 불변의 진리나 불변의 진리에 가까운 사항들이 아닌, 아래와 같이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경우에도 같은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34) Tom said that Mary is pregnant. But, I don't think so.

반면, 화자는 보고문의 종속절이 지시하는 사건이 종식될만한 상황이 자신의 발화시점 이전에 일어났다고 믿는다면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편의상 (5)의 예문을 반복한다.

(35) 가. !John said that Mary will leave on Sunday. But, she already did.  
나. John said that Mary would leave on Sunday. But, she already did.

본 논문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한 영어 모국어자들 모두 (35가)를 이상한 문장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화자가 Mary가 이미 떠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Mary가 떠났다는 것이 담화세계에서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화자의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잘못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화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35) 예문은 (33), (34)의 예문과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33) - (35)의 세 예문 모두에서 화자는 종속절의 내용이 자신의 발화시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33) - (34) 예문의 경우 화자는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문 (35)의 경우에는 이중접근문장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화자가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할 때, 종속절 내용 자체보다는 화자가 그 내용을 들은 시점과 전달하는 시점 사이에 그 내용에 변화를 일으킬만한 상황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로써, (34)의 예문에서 화자는 이중접근문장의 종속절 내용은 믿지 않지만 자신이 아는 바로는 그 내용을 들은 시점과 자신의 발화시점 사이에 그러한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으므로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한 것이고, (35)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본 논문에 제시된 '조건적 믿음'은 이러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건적 믿음을 이용한 이중접근문장 분석은 아래의 예제에서처럼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전하는 화자에게 그 거짓이나 그릇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36) A: John said that Mary is in Seoul.  
B: No. She is in Pusan. John lied to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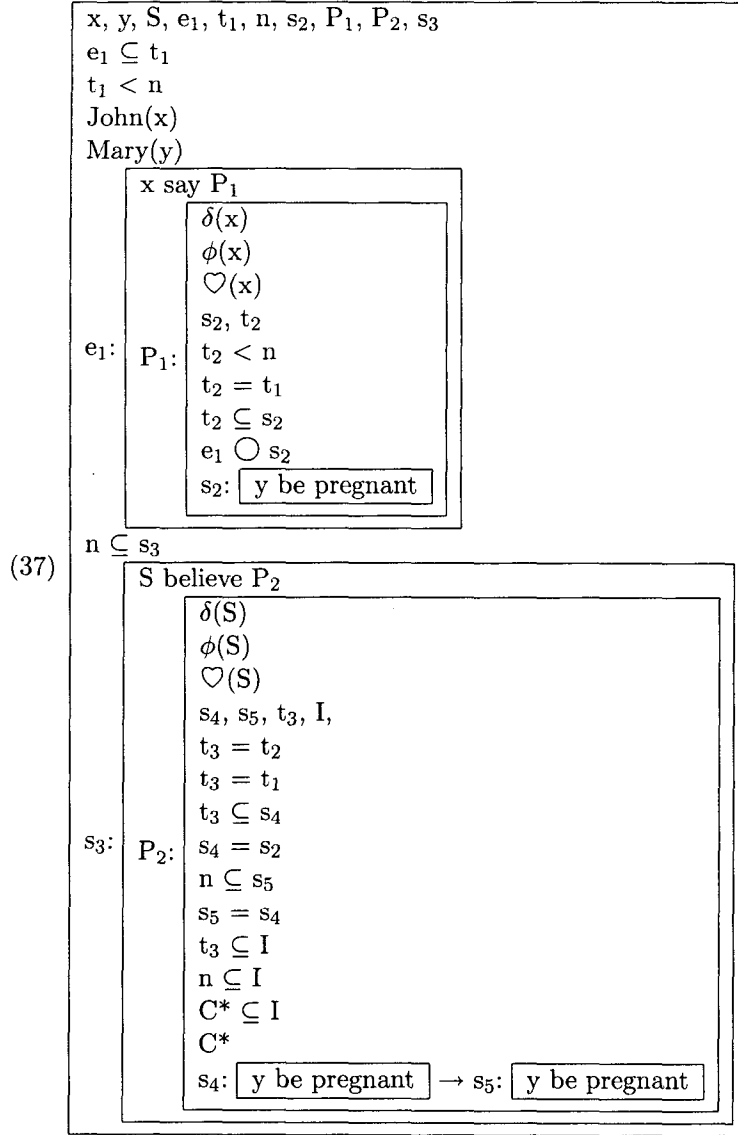
위의 첫 예문은 A가 자신이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John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한 경우이다. B는 A에게 John의 말과는 달리 Mary가 서울이 아닌 부산에 있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한 John을 비난한다. 하지만 John이 말한 시점이 아닌 현재의 발화시점에도 Mary가 서울에 있다는 뜻을 내포할 수 있는 현재시제를 사용하였음에도 A를 전혀 비난하지 않는다. 이는 B는 A가 John이 말한 시점과 A의 발화시점 사이에 Mary가 서울을 떠난 사실이 없으므로, John의



발화시점에 Mary가 서울에 있었다면 지금 현재에도 Mary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적 믿음을 갖고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이중접근문장에 사용된 현재시제나 미래시제는 화자의 조건적 믿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은 우리의 직관에 부합됨을 보였다. 이 분석은 Abusch(1991, 1997), Ogiwara(1995, 1999)에 제시된 이중접근문장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과는 달리 이중접근문장의 의미론적 측면과 화용론적 측면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예문을 통하여 제시된 조건적인 믿음이란 개념을 이용한다면 예문 (29)를 접한 청자가 화자의 심상을 (32)와 같이 이해하고, 이를 아래와 같은 담화표상구조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 $s_4 = s_2$ '와 ' $s_5 = s_4$ '의 두 조건은 (29) 문장 전체의 발화시점 즉 현재에 설정되는 Mary의 임신이 John이 말한 시점의 Mary의 임신과 동일한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sup>9</sup> 위의 담화표상구조 중  $e_1$ 의 담화 상자가 뜻하는 바는 John이 Mary가 시점  $t_1$ 에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s_3$ 의 담화 상자는 화자가 Mary의 임신이 사실이라면 시점  $t_1$ 과 현재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그러

9. 이중접근문장에서 현재시제가 사용된 종속절에 의해 지시되는 사건은 과거시제가 사용된 주절의 지시되는 사건과 같은 사건임은 Smith(1978), Chung(1989), Ogihara(1995)을 참조할 수 있다.

한 상태를 바꿀만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현재도 Mary가 임신 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화자의 조건적 믿음을 나타낸다.

$s_3$ 의 담화 상자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C\*은 Mary가 임신 중인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변화와 양립할 수 없는 조건들의 집합이다. 예로써, 'Mary가 유산을 하지 않았다', 혹은 'Mary가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다' 등과 같은 조건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조건들의 집합인 C\*은 화자의 믿음을 나타내는 담화표상구조 중 제일 상위 상자에 소개되어있는 반면, 조건적인 믿음을 이루는 'y be pregnant (at t1)'는 조건절을 나타내는 하위 상자에 소개되어있다. 반면 화자의 전체적인 조건적 믿음을 나타내는 ' $s_3$ '는 주담화상자에 소개되어 있다. 이는, 화자가 'y be pregnant (at t1)'에 대한 진위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이 상태의 변화를 초래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것은 위에서 논의된 예제 (31)에서 화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여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위 (37)의 담화표상구조는 머리말에 소개된 (2가)의 'They announced that Bush will visit Korea soon'이란 예문을 들은 청자가 '화자의 정보가 옳다면 아직 Bush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란 다소 선택적인 판단을 하게되는 현상을 설명하여 준다.

#### 4. 맺는말

본 논문은 영어의 이중접근문장을 접한 담화참여자들의 인지과정을 살펴보고, 그 인지과정을 올바르게 나타내기 위한 담화표상구조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고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 또는 미래인 형태적 특성을 지닌 이중접근문장은 종속절의 내용이 주절 사건의 시점과 전체 문장 발화의 시점이란 두 시점 모두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의미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올바르게 담화표상구조로 표현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Sells(1987)을 따른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시제의 일치를 이룬 일반 복합문의 담화표상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중접근문장의 의미론적 특성과 화용론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소우(1997)에 제시된 화자의 조건적 믿음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중접근문장에 적합한 담화표상구조를 설정하였다. 이중접근문장의 현재시제나 미래시제에는 화자의 지식으로는 자신이 그 내용을 들은 시점부터 발화하는 시점 사이에 종속절의 내용에 변화를 줄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들은 시점에 종속절의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지금도 사실이어야 한다는 화자의 조건적 믿음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자는 화자의 정보가 옳다면 이중접근문장의 종속절 사건이 평가되는 두 시점사이에 그 사건을 종식시키는 변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화자의 조건적 믿음을 이용한 이중접근문장 분석은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중접근문장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경우와 올바른 정보를 들었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이중접근문장을 잘못 사용한 경우, 화자가 종속절의 현재시제나 미래시제의 사용에 대하여 지는 책임 정도가 달라지는 것 등 이중접근문장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본고에 제시된, 화자의 조건적 믿음을 이용한 이중접근문장의 담화표상구조

는 담화참여자들의 심상(mental representations)을 표현하고자 한 담화표상이론의 정신과 부합되는 것이다. 본고가 담화표상이론의 적용범위 확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김중도. 1996. 상의미의 이중성 연구. *담화와 인지* 3:101-129.  
 정소우. 1997. 내포절의 시제 연구. *담화와 인지* 4.1:111-129.  
 정소우. 1999. 시제 해석 규칙. *언어와 정보* 3.1:1-20.  
 Abusch, Dorit. 1991. The present under past as de re interpretation. *WCCFL* 10:1-12.  
 Abusch, Dorit. 1997. Remarks on the State Formulation of de re present tense. *Natural Language Semantics* 5.3:303-313.  
 Chung, So-woo. 1989. Temporal relations in English. M.A. Thesis. University of Washington.  
 Comrie, Bernard.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clerck, R. 1991. *A comprehensive descriptive grammar of English*. Tokyo: Kaitakusha.  
 Dowty, Davi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The semantics of verbs and times in Generative Semantics and in Montague's PTQ*. Dordrecht: Reidel.  
 Enç, Mürvet. 1987. Anchoring conditions for tense. *Linguistic Inquiry* 18:633-657.  
 Enç, Mürvet. 1997. Tense and modality.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Cambridge.  
 Ogihara, Toshiyuki. 1995. Double-access sentences and reference to stat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3:177-210.  
 Ogihara, Toshiyuki. 1999. Double-Access Sentences Generalized. *Proceedings from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IX (SALT9)*, CLC Publications, Cornell University, pp. 224-236.  
 Okamura, Yusuke. 1996. The grammatical status of pure future 'will' and the category of future form. *Studia Linguistica* 35-49.  
 Partee, Barbara. 1973. Some structural analogies between tenses and pronouns in English. *The Journal of Philosophy* 70:601-609.  
 Partee, Barbara. 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7:243-286.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Sells, P. 1987. Aspects of Logophoricity. *Linguistic Inquiry* 18:445-479.  
 Sinclair, John et. al. 1992.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London: HarperCollins Publishers.  
 Smith, Carlota S. 1978. The syntax and interpretation of temporal expressions in English. *Linguistics and Philosophy* 2:43-99.  
 Stowell, Tim. 1995. What do the present and past tenses mean? In P. Bertinetto, V. Bianchi, J. Higginbotham, and M. Squartini, eds., *Temporal Reference, Aspect, and Actionality, Vol. 1: Semantic and Syntactic Perspectives*. Rosenberg and Sellier, Torino.  
 Stowell, Tim. 1996. The phrase structure of tense. ms. U. of California, published in J. Rooryck and L. Zaring, eds., *Phrase Structure*  
 Swan, Michael. 1980.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접수일자: 2002년 4월 20일  
 게재결정: 2002년 6월 22일